



KT, 구미 5G 테스트베드서 5G 서비스 선보여

KT는 13일 경북 구미시 금오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5G 테스트베드' 개소식에서 5G 기지국 장비와 함께 인공지능(AI) 서빙로봇, 반려로봇,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클래스 등 5G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KT 전시부스에서 VR과 AR클래스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KT



CU,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버추얼 815 런' 개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지난해에 이어 광복절을 기념해 가수 선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지원하는 '2021 버추얼 815 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버추얼 815 런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해 광복절 당일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해 달리는 비대면 마라톤으로 진행된다. /BGF리테일



대학원장 등 정성 모아 동국대에 3000만원 기부

동국대학교는 변춘방 세종여주병원장과 조택래 태남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윤성이 총장을 찾아 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 원 등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 윤성이 총장, 조택래 태남그룹 회장, 변춘방 세종여주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

코오롱FnC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유니폼 지원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기능성 경기복과 액세서리 등을 지원하며 힘을 더한다.

코오롱FnC는 14일 자사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 컨템포러리 퍼포먼스 골프웨어 악이 각각 양궁, 골프 국가대표의 유니폼 제작 지원에 나섰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인사

- ◆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과장(양성평등조직혁신 추진담당) 김숙자 ◇부이사관 승진 △가족정책과장 김민아 ◇과장급 승진 △홍보담당관 이정현 △혁신행정담당관 신경식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이정애 △기획재정담당관 최문선 △정보통계담당관 김애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김영옥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박선옥 ◇팀장직위 전보 △디지털소통팀장 장현경
- ◆국토안전관리원 ◇1급 승진 △감사실장 권혁기 △미래혁신실장 문동현 △영남지사장 오영석



기고
연운열 교수

최근 채식주의를 통칭하는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거니즘은 환경친화적 생활과 동물복지 등 윤리적 소비 측면이 강조되면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을 일컫는다.

위키피디아 등에는 비거니즘(veganism)을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및 그러한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채식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축제품, 양모, 오리털 등 동물성 제품 사용도 피하고 임상실험에 앞서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뜻한다. 이런 비거니즘에 동의해 동물성 제품 섭취 또는 사용

비거니즘에 대한 이해

을 피하는 사람을 비건(vegan)이라 칭한다.

완전채식주의(vegetarianism)는 동물성 음식의 섭취를 기피하고,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것을 뜻한다. 동물성 음식은 보통 동물로 만든 음식과, 동물로부터 나온 유제품(우유,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동물의 알, 동물 성분을 물에 넣고 끓인 국물과 어류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일부 엄격하지 않은 채식의 경우에는 동물의 고기를 제외한 일부의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식주의에 힘입어 '비거노믹스(veganomics)'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지구환경 변화로 각종 질병이 만연하면서 비거니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인간의 비윤리적 육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무분별한 육식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 측면도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역시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식주의를 추천하고 있다.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2가지 제안에서 "Try meatless Mondays!"라며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인도는 인구의 20~30% 정도가 락토 베지테리언(동물성 음식 중에서 유제품은 먹는 채식주의자)이다. 이들이 전 세계 채식주의자의 70%를 차지한다. 서양에서는 20세기 이후 건강, 윤리,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

세다. 미국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1%에서 2.8% 정도의 국민이 육식(닭고기와 물고기 포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서구화 이전에는 육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민족도 원래는 채식을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몽골의 침입과 함께 원나라의 식문화였던 육류가 포함된 만두와 설렁탕같은 육식문화가 유입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인들끼리의 모임에서 채식을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면서 비거니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동물복지, 환경보호, 정신수양, 종교적 관점에서 채식을 주장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로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송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

LGU+, 시각장애인용 e북 1.6만 페이지 제작

'U+희망도서' 임직원 사회공헌 400명 이상 동참 제작기간 단축

LG유플러스는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e북)를 만드는 'U+희망도서' 활동으로 4개월간 약 1만 6000 페이지 분량의 e북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지원 단체인 'IT로 열린도서관'의 인당 연간 e북 이용량을 기준으로 한사람이 약 24년 간 독서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각장애인용 e북은 일반도서를 점자파일 등으로 표현한 대체 도서를 일컫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전자 도서가 부족한 탓에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은 올 3월부터 'IT로 열린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용 e북을 제작하는 사회공헌 'U+희망도서' 활동을 시작했다. 400명 이상 인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교열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원이 동참해 e북 한 권당 7개월이 소요되던 제작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상반기에만 80여권의 e북을 새롭게 읽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e북 제작 속도로 10년 이상(140개월) 기다려야 했던 분량이다.

특히 올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한 인기 도서 '문명 1(베르나르 베르베르)',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김범석)' 등 다양한 도서가 e북으로도 도입돼 비장애인과 문화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KT '소상공인 돕는 AI' 제로페이 적용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손잡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서비스

KT는 소상공인 돕는 인공지능(AI)을 제로페이에 적용할 계획이다.

KT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협력을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은 화상회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양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에 KT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접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제로페이 가맹점 앱에서 K

T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인 '잘나가게'를 제공한다. 잘나가게는 KT 빅데이터 분석으로 내 가게 주변의 유동인구와 맞춤형 상권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출시를 앞둔 'KT AI 통화비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KT AI 통화비서는 점주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아 예약 등 단순업무 처리를 돕는 서비스로, 소상공인들의 단순업무 경감과 매장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AI와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 부사장과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화면)이 비대면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KT AI/DX융합사업부 부장 송재호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와 AI, 빅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LG이노텍 MZ세대와 혁신 공유 유튜브 광고 공모전

LG이노텍이 MZ세대와 '혁신' 노력을 공유한다.

LG이노텍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LG이노텍의 혁신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소재를 주제로 한 15~60초 이내의 숏폼 동영상을 접수받는다. 전국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4인 이하 팀도 가능하다.

광학솔루션과 기관 소재, 전장 등 제품과 ESG 활동, 조직 문화 등 LG이노텍의 혁신 이미지를 MZ세대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LG이노텍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팀당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응모 희망자는 LG이노텍 뉴스룸에서 참가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출품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최종 입상작은 심사를 거쳐 9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5편의 입상작은 LG이노텍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LG이노텍은 혁신 이미지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혁신 제품과 기술을 소재로 한 '브랜드 필름'을 매년 제작하고 있으며,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